

2008년 1월 25일 (금) 11:10 연합뉴스

<부산시, 민간전문가 주도 '문화재단' 설립>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시가 민간 전문가 주도의 문화예술사업을 펼치기 위해 연말까지 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민간에 넘겨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가칭)부산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달 중에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3월에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11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의 준비를 마치고 12월에 재단법인 형태로 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우선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억원과 시 예산 51억원 등 총 151억원으로 재단을 설립한 뒤 2018년까지 매년 20억원을 출연해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문화재단의 인력은 6명으로 구성하되 초기에는 시 공무원 3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문화재단은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고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연간 50여억원의 지원금의 심사와 집행을 비롯해 공연과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자체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화재단의 사무실 공간 확보와 자체 공연기획 등을 위해 현재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부산시민회관의 운영을 재단에 맡기는 방안도 부산시는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지역의 취약한 기초과학분야 육성을 위해 문화재단에서 이 분야에 대한 학술 지원 기능도 맡기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재단의 명칭을 '부산문화학술재단'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단이 설립돼 전문가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면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기회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yh9502@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magic@/show/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